

조선 개창기의 한양도성과 경복궁에 대한 역사 고찰

A Study on the history of Capital Hanyang and Gyeongbok Palace in the opening period of Joseon dynasty

○김 성 도*
Kim, Seong-Do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ccurately examine the history of Capital Hanyang, its Fortress Wall and Gyeongbok Palace by analyzing historical records such as Goryeosa, Goryeosajeolyo, and Joseonwangjosillok. As a result, we can see that the Hanyang Capital, which was known to have been built in Joseon Dynasty, was originally the Capital of Goryeo Dynasty, and was made by reducing the size of the capital, which was much larger than the capital of Joseon Dynasty. It can also be seen that Gyeongbok Palace during the opening period of Joseon Dynasty was originally the palace of Hanyang Capital of Goryeo Dynasty, and was renovated and extended to make it the palace of Joseon Dynasty. This study on the Capital and the Palace, the centers of politics, economy, history, and culture, has important significance as basic data that can properly grasp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history and cultural heritage.

키워드 : 한양도성, 성곽, 경복궁, 한양천도, 남경, 양주, 한양부, 한성부, 공민왕, 우왕, 공양왕, 고려, 조선, 조선 개창기

Keywords : Capital Hanyang, Fortress Wall, Gyeongbok Palace, Namgyeong, Yangju, Hanyangbu, Hanseongbu, King Gongmin, King Woo, King Gongyang, Goryeo dynasty, Joseon dynasty, opening period of Joseon

1. 서론

《고려사》 및 《고려사절요》는 고려 전반에 대하여 정리된 관찬 역사서로서 조선 문종 원년(1451)과 문종 2년(1452)에 각각 편찬되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는 그 원문 및 번역본 모두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서 고려 한양도성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면, 고려 문종 및 숙종에 의해 고려 삼경의 하나인 남경이 되어 궁궐 등의 기반 시설을 갖춘 중요 도시로 역할 하여 오다가, 고려 말 세 명의 국왕에 의해 한양천도가 추진되면서 고려의 수도로 역할 할 수 있도록 궁궐 보수·증축 및 기존 성곽 수축 등의 도읍 기반이 지속적으로 정비되었고, 그 중 두 명의 국왕에 의해 각각 한양천도가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한양도성과 관련하여 ‘천도(遷都)’ 및 ‘천한양(遷漢陽)’이라는 용어로 검색해 보면, 이러한 역사적 사실의 축소와 함께 부정적 내용으로만 간략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려 숙종에 의해 12세 초에 이미 새 도읍으로 삼기 위해 계획적으로 건설되었으며, 이때 건립된 궁궐의 경우 초창된 이래로 화재 소실 및 중창 등을 거치는 가운데, 고려 말 추진되었던 한양천도로 인해 지속적으로 보수 증축되었고, 그 성곽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수축되었으며, 이러한 기반을 갖추었기에 우왕 및 공양왕이 각각 천도하여, 한양을 도읍으로 삼았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조선왕조실록》에서는 고려 공양왕 4년(1392)에 역성혁명을 일으켜 고려의 모든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은 조선 태조가 재위 1년(1392) 8월 13일 한양천도를 명하고

이염을 한양에 보내어 기존의 고려 궁궐을 보수하게 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양천도를 반대하는 신하들의 의견을 쫓아 직접 천도 장소를 물색해 방문하다가 재차 한양천도로 결정하고 나서, 신도궁궐조성도감을 설치한 시점부터 농사철과 한겨울을 포함해 1년 1개월 정도의 기간에 궁궐 공사를 끝낸 것을 볼 수 있다.

이 궁궐은 조선 태조가 초창한 궁궐로 되어 있는 경복궁인데, 사료의 기록과 궁궐 건립 기간 등을 보면 고려의 궁궐을 개수한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 진행 중인 경복궁 복원 과정에서 고려 궁궐의 유구들이 발굴됨으로써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고려사》, 《고려사절요》, 《조선왕조실록》 등 사료에 대하여 분석 연구하여 한양도성과 경복궁의 역사를 제대로 고찰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조선 개창기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던 한양도성이 원래 고려의 도성이었으며, 지금보다 훨씬 넓었던 도성 규모를 줄여 개축하여 만든 것임을 살펴보고, 또 조선 개창기의 경복궁이 원래 고려의 한양도성 궁궐이었고, 이를 개수하여 조선의 궁궐로 삼았던 것임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정치·경제·역사·문화의 중심지인 도성 및 궁궐을 대상으로, 기본 사료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우리 역사 및 문화유산의 성격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2. 한양도성 역사 고찰

2.1 조선 개창기 이전 한양도성 역사 고찰

1) 도성은 임금이 거처하는 궁궐과 관부 및 취락 등을 갖춘 수도 또는 이를 둘러싼 성을 말하며, 여기서는 전자의 의미로 사용하도록 한다.

* 문화재청, 공학박사, 건축사

한양도성 자리는 삼국시대 당시 본래 고구려의 북한산군에 속하였으나, 백제에 이어 신라가 차지한 후, 신라 경덕왕 14년(755)에 한양군으로 바뀌었다. 고려 초 양주(현재의 한강 이북 지역)로 개칭되었으며, 고려 문종·숙종 대 남경으로 승격되었으나 원간섭기 관계 격화로 충렬왕 34년(1308)에 한양부로 바뀌었다.

이곳이 양주로 불렸던 시기에 고려 문종은 재위 21년(1067) 12월 그 이름을 남경으로 바꿔 남경유수관을 설치하였고, 격상된 지위에 맞게 인근 군민들을 이주시켜 남경을 채웠으며, 다음 해 1068년 남경에 궁궐을 지어 삼경의 하나로 삼았다.²⁾

이후 고려 숙종(재위 1095-1105)은 이곳 남경을 새 도읍으로 건설을 추진하였고, 이때부터 이곳은 고려 국왕들이 행차하는 삼경의 하나가 되었다.

그 과정을 보면 숙종 원년(1096)에 김위제가 남경 천도를 청하는 상서를 올리면서 《도선기》에 의거하여 고려 개국(918) 후 160여 년 지나서 목멱양인 남경에 도읍한다고 하였으므로 지금이 바로 새 도읍을 돌아보고 거기에 거주할 때라고 말하였다. 이에 숙종은 재위 4년(1099) 9월 직접 도성 예정지를 살피고 나서, 숙종 6년(1101) 9월에 ‘남경개창도감’을 설치한 후, 산과 물의 형세 등 풍수와 좌향 등을 고려한 남경 건설을 추진하였다. 이때 건설한 남경의 범위는 동으로는 대봉(낙산), 서로는 기봉(안산), 북으로는 면악(백악), 남으로는 사리(신용산)의 남쪽 끝에 이르렀다.³⁾ 그러는 중에 핵심 시설인 궁궐을 숙종 9년(1104) 5월에 완공하였다.⁴⁾ 이처럼 새 도읍으로 건설된 남경은 그 경계를 확실하게 정하고 필요한 기반 시설과 궁궐 등을 갖추에 따라, 국왕이 행차하여 머무르는 별경 역할을 하였다.⁵⁾

이후 고려말에 이르러 공민왕(재위 1351~1374)은 이전에 남경이었던 한양으로 천도를 추진하면서 공민왕 5년(1356)부터 공민왕 9년(1360)까지 성곽 수축과 궁궐 보수·증축을 하였고⁶⁾, 제1차 홍건적(1359.12~1360.4)과의 전쟁 상황에서도 한양천도를 위한 공역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공민왕 9년(1360) 1월에 태묘(太廟)에서 천도가 불길하다고 나온 점괘와 함께 같은 해 4월에 어렵게 몰아낸 홍건적에 이어 4월부터 6월까지 가뭄과 기근과 홍수가 이어졌고, 또 나날이 거세지는 왜구의 침략 속에 윤5월 왜가 강화 선원사와 용장사에 들어와 300여 명을 죽이고 미곡 4만여 석을 노략질하는 상황을 맞는 등 상황이 이어지면서 한양천도를 중지하게 되었다.⁷⁾

하지만 뒤를 이은 우왕(재위 1374-1388)은 재위 8년(1382) 2월 서운관에서 《도선비기》에 근거를 두고 한양도성 천도 건의를 받고서, 같은 해 8월에 천도를 결정하였고, 이를 단행하여 9월 27일 한양도성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다음 해 2월에 개경으로 환어한 후, 우왕 13년(1387) 말 재차 한양 천도에 착수하여 대대적으로 성곽 수축을 단행하였으나⁸⁾ 우왕 14년(1388) 6월에 이성계의 위화도회군 후 폐위되면서 한양도성 재천도를 이루지 못했다.⁹⁾

그 후 공양왕이 궁궐 보수를 명한 후¹⁰⁾, 재위 2년(1390) 9월 17일 한양도성으로 천도했다. 그러나 이듬해 2월 10일 다시 개경으로 환어¹¹⁾하였다.

이처럼 고려의 한양부는 남경의 지위에서 나아가 공민왕 때부터 고려의 수도로서 천도가 추진되면서 도성 및 궁궐 등 수도에 합당한 기반 시설을 갖춘 이래로 지속적으로 보수되어 왔고, 이에 따라 우왕 및 공양왕은 각각 한양천도를 단행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서 고려 말 한양도성에는 도읍지로서 정치·행정·경제·군사·종교 등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위상에 맞는 성곽과 궁궐 등을 포함하여 필요한 제반 시설과 인력이 갖추어져 있었음이 자명하다.

이와 관련하여 한양천도 때 당연히 함께 옮겨가야 할 종묘·사직에 대한 기록이 《고려사》 및 《고려사절요》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다. 종묘·사직은 가뭄과 큰 비 등의 재해가 있을 때 제사를 지내고, 특히 농사와 관련하여 비와 눈을 비는 중요한 곳이다. 이에 대하여 《태조실록》에서 태조가 재위 1년(1392) 10월 13일에 한양도성 내 고려의 종묘를 헐고 그 자리에 조선의 종묘를 건립하도록 명한 기록은 고려의 종묘가 천도에 수반해 한양에 옮겨와 있었음을 잘 보여주며, 이로부터 현 조선 종묘는 고려의 종묘 자리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²⁾

종묘·사직이 옮겨가게 되면, 한양도읍은 당연히 조선의 도읍이 아닌 고려의 한양도읍이 분명해진다. 이에 조선에서는 역성혁명에 따른 고려 역사 지우기와 조선의 도성임을 내세우기 위한 일환으로서 고려에 대한 역사서 편찬 때 고려의 한양도성 천도 관련 내용들을 부정적으로 간략하게 기록하여 천도가 아닌 것처럼 기록하면서, 천도에 수반하여 옮겨가는 종묘·사직 등을 포함하여 천도에 관련된 사항들을 모두 지운 것으로 판단된다. 종묘·사직에서 행하는 기우제 관련 기록이 우왕 4년(1378) 5월 19일¹³⁾에서 끝나고 더 이상 기록이 없는 것도 그 때문으로 보인다.

2.2 조선 개창기 한양도성 역사 고찰

고려 공양왕 4년(1392)에 역성혁명을 일으켜 고려의 모든 유산을 그대로 받은 조선 태조는 재위 1년(1392) 8월 13일 한양 천도를 명하였다.¹⁴⁾

그런데 태조는 한양천도를 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반대하는 신하들로 인해, 태조 2년(1393) 2월 1일부터

2) 《고려사》 지리1 남경유수관 양주 연혁, 《고려사절요》 문종 21년 12월 및 문종 22년 12월 기사. 한양부는 조선 태조 4년에 한성부로 바뀌었다.

3) 최창조, 〈남경천도설〉, 《한국사 21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국사편찬위원회, 1996.12.30, p.175 참조

4) 《고려사》 열전 방기 기사, 《고려사절요》 숙종 원년 8월 기사, 《고려사》 지리1 남경유수관 양주 연혁 기사, 《고려사》 숙종 4년 윤9월, 숙종 6년 9월 및 10월, 숙종 7년 3월, 숙종 9년 5월 기사 참조

5) 남경은 이후 확대되었고, 홍영의 논문(〈고려시대 남경 경영의 배경과 공간 영역〉, 《한국중세사연구》 제68호, 2022, p.214)에서 대체로 현재 서울시 영역 중 한강 북쪽 지역 대부분, 서울 동쪽의 경기도 구리시 전체, 북한강과 인접한 남양주시 화도읍 등 남양주시 남부와 동부 지역이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6) 《고려사》 세가 공민왕 5년, 공민왕 6년 1월 28일 및 2월 4일, 공민왕 9년 1월 28일 및 7월 17일 기사 참조

7) 김창현, 〈공민왕 중반 천도론과 三蘇 경영론〉, 《서울과 역사》 제106호, 2020.10, p.216 및 《고려사》 열전 윤해 윤택조 참조

8) 《고려사》 열전 우왕 13년 11월 및 우왕 14년 2월 기사 참조

9) 류주희, 〈제7장 조선 건국과 한양 천도〉, 《한 권으로 읽는 경기도의 역사》, 경기도사편찬위원회, 2008.9, p.102 참조

10) 《고려사》 세가 공양왕 2년 7월 15일 기사 참조

11) 《고려사》 세가 공양왕 2년 9월 및 공양왕 3년 2월 기사 참조

12) 《태조실록》 태조 1년 10월 13일 및 10월 21일, 태조 3년 4월 21일, 태조 4년 7월 27일 기사 참조

13) 《고려사》 권54 지 권제8 오행 2 금 가뭄조 참조

14) 《태조실록》 태조 1년 8월 13일 기사 참조.

약 1년 반에 걸쳐 계룡산 등 여러 곳의 천도 장소를 물색해 방문하였다.¹⁵⁾ 하지만 결국 천도를 해야 한다면 한양이 가장 좋겠다는 의견으로 모아지면서, 태조 3년(1394) 8월 24일 재차 한양 천도를 결정하였다.

이에 앞서 태조는 재위 2년(1393) 2월 9일에 의안백 등에게 한양 성곽을 축조할 지세를 살피게 하고,¹⁶⁾ 이해 8월 5일부터 태조 3년(1394) 2월까지 약 6개월간, 그리고 같은 해 7월에 재차 1달간 고려의 한양도성 성곽을 보수하였다.¹⁷⁾

뒤이어 태조 4년(1395) 6월에 한양부를 한성부로 고치면서, 한양부에 속해있던 아전들과 백성들을 견주¹⁸⁾로 옮기고 양주군이라고 고쳐, 고려의 한양부 규모를 대폭 축소하였고,¹⁹⁾ 이렇게 축소된 조선의 한양도성에 맞춰 기존 고려의 한양도성 성곽을 개축할 필요성이 생겼음은 자명하다.

이에 따라 태조는 한양 궁궐(경복궁) 공사 마무리 즈음으로서 같은 해 윤9월 10일 규모를 줄인 한양도성 터를 순회한 후, 곧바로 윤9월 13일 ‘도성조축도감’을 설치하고 정도전에게 명하여 성터를 정하게 하였다. 이는 앞서 2년 7개월 전 의안백 등에게 명하여 한양 성곽을 축조할 지세를 살피도록 하여 이미 파악한 상태에서, 정도전에게 재차 성곽 자리를 정하도록 한 것을 볼 수 있다.²⁰⁾

한양도성은 왜적의 침략을 받은 적이 없기에, 성곽을 완전한 상태로 축조하는 것은 시급한 사안이었고, 또 태조는 외적을 방어하는 성곽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²¹⁾

이어지는 가을 추수절과 한겨울 및 다음 해 농번기 등은 부역 동원에 어려운 시기이므로, 태조 5년(1396)에 성곽 공사를 두 차례에 나누어 시행하였다. 이해 1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 각 지방에서 백성 118,070명을 동원하여 1차로 시행하였고, 이해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백성 79,400명을 동원하여 2차로 시행하여, 도합 197,470명을 동원하여 성곽 공사를 끝냈다.²²⁾

태조 5년 당시 한양도성 공사 기록을 보면 지형이 평지이거나 완만한 곳은 토성으로 쌓았고 그 길이가 40,300척, 높고 험한 곳은 석축성으로 쌓았고 그 길이가 19,200척으로, 평지성과 산성 구조를 결합해 축성하였고, 여기에 4대문(홍인지문·승례문·돈의문·숙정문)과 4소문(홍화문·광희문·소덕문·창의문)을 갖추 만들었다고 되어 있다.²³⁾

그런데 직전의 성곽 축조 때 부역을 기피하여 장정이 아닌 아이나 여자가 동원되는 문제가 심각하여 이를 논죄할 수 있도록 태조에게 장계를 올린 태조실록 기록²⁴⁾에서 보이는 당시의 상황을 별개로 하더라도, 59,500척, 즉 18km를 넘는 토성뿐만 아니라 석축성에 문루까지 만드는 대규모 한양도성 성곽 역사를 4개월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완료했다는 것은 고려의 한양도성 성곽이 어느 정도

축조되어 있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임을 알 수 있다.²⁵⁾

그 근거로서 세종조에 도성수축도감이 올린 글에서 허물어진 토성 및 석성을 수리할 때 소요 인력에 대한 기준을 밝힌 것을 보면, 토성인 경우에는 매 척당 15명, 석성인 경우에는 매 척당 5명씩으로 쌓는 것으로 산정해서 동원 인력을 산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²⁶⁾ 이 기준에 의하면 한양도성 성곽을 보수하는 것만으로도 토성 40,300척의 경우 604,500명이 필요하고, 석성 19,200척의 경우 96,000명이 필요하여, 전체 700,500명이 필요한데, 새롭게 축성할 경우 훨씬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정조가 축성한 수원화성의 경우에도 전체 길이가 5.4km 정도인데, 획기적인 신기술을 사용하고 전문 기술을 지닌 공장이 시공하였음에도 정조 17년(1793) 12월에 성터를 조사한 후 정조 20년(1796) 10월 16일 낙성연을 베풀기까지 약 2년 10개월 걸린 것을 보면, 그 3배가 넘는 성곽을 4개월이 채 안되는 기간에 완성하였다는 것은, 성곽을 신축한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당시의 동원 인력 상황 및 극히 짧은 축성 기간을 볼 때 한양도성 성곽은 완전히 새로운 도성 성곽을 쌓은 것이 아니며, 고려의 한양도성을 근간으로 해서 규모를 줄인 한성부에 맞춰 그 성곽을 고쳐 쌓은 것으로 판단된다.

3. 경복궁 역사 고찰

태조는 재위 1년(1392) 8월 13일 한양 천도를 명하고 이엄을 한양에 보내어 기존의 고려 궁실을 보수하게 하였다. 뒤이어 9월 3일에 시중 배극렴 등으로부터 한양 궁궐이 완성되지 않고 성곽이 아직 덜 되어서, 궁실과 성곽이 건축되고 각 관사가 배치되기를 기다린 연후에 천도할 것을 주청하는 것을 듣고서 윤허하였다.

그런데 한양천도를 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반대하는 신하들로 인해, 태조 2년(1393) 2월 1일부터 태조 3년(1394) 8월까지 약 1년 반에 걸쳐 천도할 다른 장소를 찾아 여러 곳을 물색해 방문하다가 결국 태조 3년(1394) 8월 24일 재차 한양천도를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해 9월 1일 도읍지 궁궐 공사를 위한 임시 기구인 신도궁궐 조성도감을 설치하고 나서, 같은 해 12월 3일에 궁궐 공사에 앞서 백악과 목멱산의 신령 등에게 고유문을 지어 고하고, 다음날 12월 4일에 궁실을 짓는 터에 오방의 지기(地祇)에 제사 지낸 후, 승려와 백성을 동원하여 다음 해인 태조 4년(1395) 1월 및 2월에 공사한 것을 볼 수 있다.²⁷⁾

그리고 이해 8월 12일에는 좌도 4,500명, 우도 5,000명, 충청도 5,500의 백성을 궁궐 공사에 동원한 후, 이해 9월 15일에 가을 추수를 위해 이들 백성을 귀가시켰다. 이때 승려는 그대로 남겨 공사를 시켜 9월 29일 공사를 완료하였고, 10월 7일에 궁궐 공사를 마치고 궁궐 이름을 ‘경복궁’으로 짓고, 동시에 각 전각 이름을 지었다.²⁸⁾

이처럼 1년 1개월 정도의 궁궐 공사 기간 중 한겨울과

15) 《태조실록》 태조 2년 2월 1일 및 8월 5일 기사, 태조 3년 2월 29일·8월 11일·8월 13일 기사 참조

16)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2월 9일 기사 참조.

17) 《태조실록》 태조 2년 8월 5일, 태조 3년 2월 29일·7월 21일·7월 30일 기사 참조

18) 견주는 고려 현종 9년에 남경유수관 양주에 내속되었다.

19) 《태조실록》 태조 4년 6월 6일 기사 참조

20) 《태조실록》 태조 4년 윤9월 10일 및 윤9월 13일 기사 참조

21) 《고려사》 공민왕 22년 6월 및 《태조실록》 태조 3년 2월 29일 기사 참조

22)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9월 1일, 태조 4년 9월 26일, 태조 5년 1월 9일·2월 28일·7월 21일·8월 6일·9월 24일 기사 참조

23) 《태조실록》 9권 태조 5년 2월 28일 및 9월 24일 기사 참조

24)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7월 21일 기사 참조

25) 한양성곽 전체 길이가 59,500척을 영조척(약 30.8cm)으로 환산할 경우 약 18.3km로서, 현재 길이 18.6km에 가까운 것을 볼 수 있다.

26) 《세종실록》 13권 세종 3년 10월 29일 기사 참조. 한편 이 기준에 따라 세종 때 한양도성 수축을 위해 여러 도에서 43만 명을 징발하였다.

27) 《태조실록》 태조 1년 8월 13일·8월 15일·9월 3일, 태조 3년 9월 1일·12월 3일·12월 4일, 태조 4년 2월 1일 및 2월 19일 기사 참조

28) 《태조실록》 태조 4년 8월 12일, 9월 15일, 9월 29일, 10월 7일 기사 참조

가을 추수철의 경우 백성을 동원할 수 없었던 시기여서, 사실상 궁궐 공사를 9개월 남짓한 기간에 공사를 끝내고 있다. 더욱이 이 짧은 공사 기간 중 7월 3일 폭풍과 뇌우로 궁궐 동쪽 월랑 48간이 무너지는 사고도 발생하였다.²⁹⁾

이들 기록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려 한양도성 궁궐이 이미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태조 1년 이엽에게 궁궐 보수를 명한 기록과, 또 9개월 남짓한 기간에 궁궐 조성을 끝내고 전각 이름을 지었던 기록에서, 당시 경복궁은 새롭게 초창된 것이 아니고 고려의 한양도성 궁궐을 새로운 왕조의 필요에 맞게 고쳐 보수하고 확장해, 새 왕조의 이념에 맞게 경복궁이란 이름과 각 전각의 이름을 붙인 것임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경복궁 내 흥복전 터 발굴조사 때 확인된 고려 때의 길이 12m, 너비 1.1m의 구(溝) 및 추정 ‘宮(궁)’ 자명 수키와 등 출토 유물은 이 경복궁이 고려 남경 아래의 궁궐임을 분명하게 뒷받침하고 있다.³⁰⁾

이와 함께 조선 말 고종 때 재건된 경복궁의 사례를 보면, 흥선대원군 주도로 범궁으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모로 재건한 1차 시기와 고종의 주도로 지속적으로 증축 및 보수를 한 2차 시기로 구분되는데, 여기서 1차 재건 기간을 보면 고종 2년(1865) 4월부터 고종 5년(1868) 7월까지로 3년 3개월이 소요된 것을 볼 수 있다.³¹⁾

조선말 경복궁 1차 시기 재건 때 조선의 모든 국력을 동원하였던 역사적 사실로부터 볼 때, 조선 개창기에 역성혁명을 일으켜 조선을 세운 태조가 불안정한 정국 속에서, 모든 국력을 동원하여 9개월 남짓한 기간에 경복궁을 새로 건립하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이 한양도성 궁궐의 역사를 거슬러 가면, 고려 숙종 9년(1104) 5월에 궁궐이 완공되었으며 그 이래로 역대 고려 국왕이 행차해 왔다. 남경 건설 이래 국왕이 행차한 해를 살펴보면, 숙종 9년(1104), 예종 3년(1108), 예종 5년(1110), 예종 12년(1117), 예종 15년(1120), 인종 4년(1126), 의종 4년(1150), 의종 21년(1167), 충렬왕 9년(1283), 충렬왕 11년(1285), 충렬왕 27년(1301), 충숙왕 12년(1325), 충혜왕 즉위년(1330) 등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인종 4년 행차 이후 24년이 지나서야 인종이 행차한 기록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인종 6년(1128)에 남경의 궁궐이 불탔고, 이에 궁궐 재건 후 행차에 나섰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 의종 21년(1167) 이후 충렬왕 9년(1283)에 행차한 기록을 볼 수 있는데, 이때 사용된 궁궐은 고려사절요 기록으로부터 고종 22년(1235)에 새롭게 재건된 궁궐로 볼 수 있다.³²⁾

이렇게 초창 후 소실과 재건을 거치고 나서, 고려 말에 이르러 공민왕 이래 공양왕까지 한양천도를 위해 보수·증축되어 왔고, 우왕 및 공양왕이 한양천도를 단행하고 이어해 머물렀던 당시의 궁궐이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조선 개창기의 경복궁은 고려의 한양도성 궁궐이었고, 그 역사는 고려 남경 궁궐에서 시작하였기에, 매우 오랜 역사를 지닌 궁궐이었다.

4. 맺음말

29)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7월 3일 기사 참조

30) 국립문화재연구소, 《경복궁 흥복전지 발굴조사보고서》, 2008, pp.73-75

31) 김성도, 〈고종조 중창된 경복궁 후원 규모 및 건축 구성에 관한 연구〉, 《고궁문화》 제15호, 2022, p.11 참조

32) 《고려사》 세가 인종6년 2월 기사, 《고려사절요》 고종 21년 7월 및 고종 22년 2월 기사 참조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려의 한양부 이름을 그대로 간직한 한양도성은 고려 말 2차례 한양천도가 이루어졌던 역사적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고려 말에 궁궐과 성곽 및 종묘 등을 포함하여 도성 유지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이에 따라 조선 태조의 한양천도를 적극 반대했던 신하들도 천도한다면 한양이 가장 적합하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조선 태조는 역성혁명에 따른 불안정한 정국 속에 한정된 자원에 맞춰 고려의 한양도성을 대상으로 하여 그 안에 속해있던 아전들과 백성들을 견주로 옮기고 양주군이라고 고쳐 고려의 한양도성 규모 축소 후, 그 줄어든 규모에 맞게 고려의 도성 성곽을 바탕으로 하여 4개월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조선의 한양도성 성곽을 개수하였다.

이와 함께 고려 한양도성 궁궐을 새 왕조의 필요에 맞게 9개월 남짓한 기간에 고쳐 보수하고 확장하여 ‘경복궁’이라 이름 지었는데, 최근의 경복궁 흥복전 복원공사를 위한 발굴에서 고려 궁궐의 유구가 나오으로써, 원래 고려의 궁궐이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조선 개창기의 한양도성과 경복궁은 조선의 역사는 물론이고, 고려 남경 이래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매우 오래된 역사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조선 초에 그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현재 고려 한양도성 규모와 그 성곽의 원래 모습을 정확히 알지 못하며, 이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발굴조사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경복궁 복원 사업에서 필수적인 발굴조사를 더욱 깊이 확대하여 고려 때의 궁궐 규모 및 모습을 확실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숙종 4년(1099)에 숙종이 직접 도성 예정지를 살피고 난 이래로 조선시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한양도성 및 궁궐의 역사를 명확히 하고, 이로부터 오늘날 수도 서울의 역사가 고려의 새 도움으로써 건설된 고려 전기부터 확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수도 서울의 영역 중 한강 북쪽 지역 대부분, 서울 동쪽의 경기도 구리시 전체, 북한강과 인접한 남양주시 화도읍 등 남양주시 남부와 동부 지역이 포함된 지역의 땅 속에 고려 전기의 역사적 유구가 그대로 남겨져 있음을 인식하는 것으로, 서울을 포함한 이들 지역을 개발할 때 충분한 주의와 함께 철저한 발굴이 필요한 까닭이다.

참고문헌

1. 《고려사》
2. 《고려사절요》
3. 《조선왕조실록》
4. 《경복궁영건일기》
5. 김성도, 〈고종조 중창된 경복궁 후원 규모 및 건축 구성에 관한 연구〉, 《고궁문화》 제15호, 2022, pp.7-39
6. 김창현, 〈공민왕 중반 천도론과 三蘇 경영론〉, 《서울과 역사》 제106호, 2020.10, pp.207-263
7. 홍영의, 〈고려시대 남경 경영의 배경과 공간 영역〉, 《한국중세사연구》 제68호, 2022, pp.213-255
8. 경기도사편찬위원회, 《한 권으로 읽는 경기도의 역사》, 2008.9
9.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21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1996
10. 국립문화재연구소, 《경복궁 흥복전지 발굴조사보고서》, 2008
11. 경기문화재단, 《화성성역의궤 국역증보판》, 2005